

AUTHOR 김기련

TITLE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뮌찌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

IN 한국개혁신학회 논문집
vol.5 (1999): 165-200

나 형성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발제자의 관점과 상반된다.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하나님이 경륜적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한다. 만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perichoretic한 본질적 관계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정의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각자 구별되고 개인적인(individual) 인격과 의식(consciousness)을 소유한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로 이해된다면 전통적 삼위일체론이 비판한 삼신론(tritheism)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셋째로, “고전적 관점”이 추구하는 지나친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을 세상과 분리시키며, 하나님을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이룩하신 구속의 의미를 희석시킬 위험성이 있다. 반면에,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동일시(identify)하며 경륜적 삼위일체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형성한다는 “새로운 십자가 신학의 관점”은 영원하시며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역사 속에 묶어두려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두 개의 관점을 조화시켜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계시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위의 몇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승구 교수가 발제한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계”는 각기 다른 신학적 관점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개혁주의적인 삼위일체론”的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신학적 차원에서 개혁주의 신학교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평하고 싶다.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뮌찌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

김기련(목원대)

I.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뮌찌에 대한 최근 연구의 동향

루터와 뮌찌에 대한 주제는 독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 연구되었다. 무엇보다 루터와 뮌찌의 “신학과 정치윤리”에 대한 논쟁은 항상 흥미로운 주제였다. 종교시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루터와 뮌찌를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

1. 서방교회와 서구(西歐) 역사관에 의한 평가— 루터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뮌찌와 비교하여 루터는 “역사의 승리자”, “종교개혁의 적자(嫡子)”, “독일의 영웅”인 반면에 뮌찌는 “종교적 광신자”, “환상주의자”, “정치적 혁명가”, “악질적인 선동가”, “악마의 화신” 등의 오명(汚名)과 더불어 이단자로 정죄되었다.¹⁾

2. 동구(東歐)의 막스-레닌적 역사관에 의한 평가— 막스(Karl Marx)와 앵겔스(Friedrich Engels) 아래로 1970년대까지 막스-레닌적

1) Max Steinmetz, Das Münzerbild von Martin Luther bis Friedrich Engels, Berlin (Ost) 1971.

역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은 루터를 “유산계급(부르주아)의 대표자” 또는 “유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도자”, “사회주의의 배신자”, “자유의 매장자” 그리고 “영주의 하인” 등으로 보았다.²⁾ 반면에 엥겔스의 1850년도 저작 『농민전쟁』이 출판된 이후로 카우트츠기(Karl Kautsky)로부터 소련의 역사학자 스미린(M. M. Smirin)에 이르기까지 맑스주의자들은 뮌쩌를 사악한 당국에 대항하여 싸운 “종교혁명의 영웅”, “사회주의의 선구자”로 보았다.³⁾ 맑스주의적 종교개혁 연구자들은 루터가 특별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뮌쩌와 변증법적 대조를 이루는데 서 있다고 보았다. 루터는 무엇보다 토마스 뮌쩌와 대조되는 인물로, 농민 신분의 적대자로 묘사되었다. 반면에 뮌쩌가 수행한 민중종교개혁(Volksreformation)은 유럽의 [초기 시민혁명]으로 해석되었다.⁴⁾

그러면 서구의 역사 이해, 곧 “루터는 세계사의 영웅이요, 뮌쩌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단자요, 저주받을 인물”로 보는 것은 올바른 견해인가? 또 맑스 혁신주의적 - 사회주의적 역사 이해, 곧 “루터는 영주의 종으로, 농민과 민중의 배반자이고 사회주의 파괴자”이며 그와 반대로 “뮌쩌는 반봉건주의자로, 농민과 민중의 지도자이고 사회주의 건설자”로 보는 것은 과연 정당한 평가인가? 문제는 서구의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이나 맑스주의적 사회주의 역사가들이 그들이 지닌 일방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루터와 뮌쩌를 평가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종종 루터와 뮌쩌가 추구하는 종교적 - 신앙적 차원을 무시했음이 자적되었다. 따라서 루터와 뮌쩌를 이해하는 데는 중도적 해석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서구에서는 뮌쩌를 보는 면이 달라지게 되었다. 뮌쩌가 주로 “신학과 혁명”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졌고 뮌

2)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in neuer marxistischer Sicht, in: Luther, Zeitschrift der Luther-Gesellschaft, 1985 Heft 1, S. 2-4.

3) Thomas Nipperdey, Reformation Revolution Utopie, Göttingen 1985, S. 38f.

4) Siegfried Bräuer, Martin Luther in marxistischer Sicht von 1945 bis zum Beginn der achtziger Jahre, Berlin 1983, S. 5.

쩌가 그리스도교적 신학자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혁명가였는가라는 질문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통분모적 견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뮌쩌가 비정치적 신학자에서 정치적 혁명가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뮌쩌가 언제부터 순수한 목회자에서 혁명적 과격주의자로 빠져들게 되었는가였다. 따라서 뮌쩌의 초기 신학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고에르츠(Hans-Jürgen Goertz)는 뮌쩌를 중세 후기 유산에서 나온 신비주의자, 목시론자 그리고 혁명가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양자 택일」의 해석 방법을 거부하여 “뮌쩌는 신학자일 뿐 아니라 혁명가요, 혁명가일 뿐 아니라 신학자”라는 도식을 전개하였다.⁵⁾

한편 1980년대 이래로 구 동독에서의 맑스주의적 루터 상(像)과 뮌쩌 상(像)은 점차 변화가 있었다. 1967년까지만 해도 동독에서는 종교 개혁 450주년을 맞이하여 루터가 빠진 16세기의 세 인물, 곧 후텐(Hutten), 뮌쩌(Müntzer), 멜랑히톤(Melanchthon)을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어 축제를 벌였다. 그러나 1980년⁶⁾ 이후로 구 동독에서 마르틴 루터는 더 이상 “영주의 하수인” 또는 “민족의 배신자”, “독일 역사에서의 반혁명분자(반동분자)”가 아니라 “독일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되었다. 마르틴-루터-위원회(Martin-Luther-Komitee)의 의장인 구 독일 통일사회당(SED) 서기장이었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루터는 독일 민족에게 언어, 문화, 윤리, 사회주의적-인도주의적 이상(理想) 등, 값진 유산을 남겨준 위대한 독일의 아들이었다”고 평가했다.⁷⁾ 반대로 동독의 신학자들에 의해 뮌쩌는 “정치적 이상주의자”, “혁명의 선구

5) Hans-Jürgen Goertz, Thomas Müntzer, Mystiker Apokalyptiker Revolutionär, München 1989, S. 160-161.

6) 1980년은 루터의 출생 500년이 되기 3년 전으로 이때 동독에서는 앞으로 있을 1983년 루터 출생 5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르틴 루터 위원회”(의장은 서기장인 호네커)를 구성하여 종교개혁과 루터에 대한 재평가를 연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1983년에는 동, 서 독일에서 루터에 관한 수많은 심포지엄과 세미나 그리고 루터에 대한 출판물이 대량으로 발간되었다.

7) Hans Süßmuth(Hrsg.), Das Luther-Erbe in Deutschland, S. 16-40.

자”, “농민전쟁의 지도자”에서 점차 “종교개혁자”, “목회자”, “복음적 설교자”, “신학자” 등으로 재해석되었다(Ullmann, Brendler, Brauer, Demke, Leich).⁸⁾

필자는 루터와 뮌策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학적 그리고 정치-윤리적 입장을 대조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들 두 신학자요, 종교개혁자는 서로 상이한 신앙체험과 상이한 신학적 동기와 방향을, 그리고 정반대의 역사관에 따른 상이한 사회적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 없이는 뮌策가 잘 드러나지 않고 뮌策 없이는 루터 또한 돋보이지 않는다.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견해에 따르면 루터나 뮌策와 관련해서, 종교개혁 없는 혁명은 있을 수 없고 혁명 없는 종교개혁이란 생각할 수 없다.⁹⁾ 필자는 대립적인 두 종교 개혁자들 — 곧 한 사람은 보수적이고 또 한 사람은 진보적인 — 을 다섯 가지 신학 분야에서 대칭적 방법으로 다룸으로 그들의 신학적 독특성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곧 루터와 뮌策의 신비주의 신학, 성령신학, 십자가 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정치신학이다. 매장마다 루터와 뮌策의 신학을 그들의 신국관(神國觀)과 관련해서 대비(對比)하여 논술하려고 한다. 자료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루터와 뮌策의 원저작(原著作)을 우선 참고했고 이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그 시대의 역사적 문헌들을 참고했으며 삼차적으로 그들을 평가한 신학자들의 저술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8) Epd. Dokumentation Nr. 35/89. Frankfurt am Main, S. 1-63.

9) Jürgen Moltmann, Thomas Müntzer, in: Hans Jürgen Schultz(Hrsg.), *Luther kontrovers*, S. 225.

II. 마르틴 루터와 토마스 뮌策 신학의 비교

1. 신비주의 신학

A. 루터

루터는 그의 초기 종교개혁 사상에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¹⁰⁾ 후에는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데 신비의 길을 버리고 신앙의 길을 택했다. 그 이유는 신비와 신앙은 각기 다른 길과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신비주의에서는 죄란 이기심과 자기애(自己愛) 등으로 보았는데 루터에게서는 죄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

둘째, 신비주의에서는 하나님과 개인 영혼의 직접적인 합일 관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顯現)사건이 약화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중재적 사역이 약화된 것이다. 신비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앙인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모범이요, 상징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십자가 신학은 신앙의 신학이다(Theologie crucis ist Theologie Glaubens).”¹¹⁾ 루터는 신비주의에서 인간의 행위적인 요소를 발견하였다. 루터의 신학적 기반은 「오직 믿음으로」(Sola fide)였다.

셋째, 신비주의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합일을 추구하는데 루터는 인간과 신의 질적 차이와 간격의 차이를 주장한다(Differenzierung). 신비주의는 인간 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루터는 초월적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인간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와 만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신앙 안에서이다. 루터는 신비주의

10) 루터는 독일-네델란드 신비주의자들의 [새로운 현신](Devotio moderna) 운동과 수도원 생활 중에 수도원 원장인 요한 슈타우퍼츠에게서 그리고 중세 신비주의자인 요한 타울러의 작품에서 신비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11) Walther von Loewenich, *Luthers Theologia crucis*, S. 172.

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혼을 소유하거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연약하고 깨끗치 못한 인간의 죄된 성품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¹²⁾

넷째, 신비주의의 위험은 기독교 역사를 신화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성서적 계시가 약화되고 그리스도의 수난 사건이 하나님의 상징으로 화(化)해 버린다. 신비주의에서는 성서 없이 신비가 일어난다.¹³⁾ 즉 꿈과 환상과 자기 느낌과 신비적 체험이 성서를 대신한다. 이와 같은 성서무익(聖書無益) 사상은 「쓰비카우 예언자들」과 토마스 뮌찌 등 신비적 성령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난다. 루터는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여, 또 한편으로 신비적 성령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 「오직 성서만으로」(Sola scriptura)라는 명제를 강조하였다.

다섯째, 신비주의에서는 성례전적 은총과 교회의 역할과 교직제도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가시적인 성례전이나 교직제도의 도움 없이도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무교회주의적 신앙을 갖게 한다. 그러나 루터는 성례전이나 교회의 역할을 결코 과소 평가하지 않았다. 루터는 교회 수호의 사람이었다.

B. 뮌찌

트뢸취(Ernst Trötsch)는 뮌찌의 종교운동의 배경은 타울러의 신비주의, 요하킴의 종말론 그리고 후스파의 혁명론이라고 분석하였다.¹⁴⁾ 뮌찌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세계와 외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이다. 신비주의적 의미로는 마음속에 있는 소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대우주이다. 내적인 인간은 내면 세계에 상응하고 외적인 인간은 외적 세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루터는 인간은

하나님과 악마 사이에 존재하고 인간의 본성은 전혀 자유의지가 없는 타는 동물(나귀) 같아서 하나님이 아니면 악마가 타게 된다¹⁵⁾고 보았는데 뮌찌는 그와 반대로 신비주의적 전통에 따라 인간은 신앙을 통해 신의 경지(境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인간되심(성육신)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 육체적-세속적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인간되심을 통해 신들이 된다”¹⁶⁾는 것이다.

노예의지를 주장하는 루터와는 반대로 뮌찌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자기 스스로를 개척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뮌찌는 인간이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 본질이 남아 있어 하나님의 지혜의 불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⁷⁾ 뮌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간이 그의 영혼의 심연(深淵)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일치하느냐에 있다. 뮌찌는 루터의 말씀의 신학에 반대하여 성서 외에 창조에서, 자연에서, 역사에서, 인간의 본질에서 그리고 신비주의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뮌찌의 신학은 중세 신비주의 사상에서 유래한 일종의 신비신학으로, 신비신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영적 교통 경험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뮌찌는 중세 가톨릭의 성례전 중재나 루터의 신앙중재가 아닌 주관적, 직접적 신비를 구원에 이르는 중재(시금석)로 보았다. 뮌찌의 신비주의는 마음에서의 선민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신인 협동적 건설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뮌찌의 선민연맹은 종교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친구 운동”이요,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이라 볼 수 있다.

뮌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세적-초월적 하나님 아니라 현세적-

12) Roland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S. 124f.

13) Roland H. Bainton, ebenda, S.125.

14) Eric W. Gritsch, *Reformer without Church*, Preface vii.

15) WA 18, 626, 22f: 750. 9-10.

16) MSB 281, 20f.

17) Vgl. Dieter Fauth, *Das Menschbild bei Thomas Müntzer*. in: ThThM. S. 51.

내세적 하나님이다. 또한 뭉쩌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속에 실현되는 지상의 나라이다. 하나님은 수백만 마일의 먼 거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만나시고 마음의 심연에 거하신다.¹⁸⁾ 하나님의 말씀이 육비(肉碑)에 새겨지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집이 마치 성전처럼 마련되고 성령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죄의 공격을 물리친다. 그리하여 그는 내적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생각에서나 행동에서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와 지복(至福)만이 있는 하늘의 나라의 원형을 실현하는 것인데 곧 인간의 마음에서, 또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2. 성서-성령신학

A. 루터

루터는 성서를 주제로 한 논쟁에서 세 부류의 대적자들과 싸워야 했다. 첫째는 로마 교황청과의 “성서 주해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요, 둘째는 에라스무스(Erasmus)와의 “성서의 명석성”에 대한 논쟁이요, 셋째는 열광적 성령주의자들과의 “성서의 능력”에 대한 논쟁이었다. 루터는 성령주의자나 뭉쩌처럼 성서나 설교에서, 선포된 말씀 이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는 신비의 직접성의 주장을 거부하였다.¹⁹⁾ 뭉쩌가 중세 신비주의의 전통에 따라 개인적 성령체험과 인간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주장하는 반면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서와 성령의 연결을 강조한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Spiritus operatur in verbo*)는 것이다.²⁰⁾ 루터는 뭉쩌의 교리에 반대하

18) MSB 237, 7f.

19) WA 54, 173, 1f.

여 “하나님은 먼저 외적인 말씀을 통하지 않고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성령과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²¹⁾고 주장한다. 말씀의 사역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생각할 수 없다. 루터는 기톨릭교회의 전적인 은혜 독점과 그에 따라 강조하는 행위정의(Werkgerechtigkeit)나 신비주의자들의 신비경건(Mystikfrömmigkeit)을 반대하고 신앙정의(Glaubengerechtigkeit)를 구원의 대전제로 삼았다. 역사적 문서로 전승된 성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전체성(Totalität)과 절대성(Absolutheit) 그리고 배타적 독점성(Ausschliesslichkeit)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성령은 태양의 빛과 열처럼 또는 말할 때의 소리와 호흡처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²²⁾ 성령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을 중재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신도의 심장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직임을 다하나 공공의 교회에서 행해지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루터는 뭉쩌나 성령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없이 발생하는 성령의 신비적 독자성이나 비밀집회(Konventikel)나 사적 모임에서의 열광적 푸다거리식의 성령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루터는 성서, 교회,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련성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교회는 서로간 협력적이다. 복음선포(성서)는 교회와 성령을 전제로 하는데, 그 선포는 교회에서 발생하고 성령을 통해 신자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 교회는 복음선포(성서)와 성령을 전제로 하는데 복음선포를 통해 교회가 설립되고 유지되며 성령은 그의 은사를 수여한다. 성령은 교회와 복음선포(성서)를 전제로 하는데 말씀선포와 설교를 통해 성령은 역사하며 그와 함께 교회의 존재가 가능해진다.²³⁾

20) WA 9, 632, 25: 642, 2.

21) WA 50, 245, 1f.

22) Paul Althaus,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6. Auflage, S. 44–45.

23) Klaus Schwarzwäller, Delectari assertionibus zur Struktur von Luthers Pneumatologie, in: Luther Jahrbuch 1971, S. 36.

루터는 말씀의 주제에 있어서도 뛰어나 열광적 성령주의자들의 자의적 해석 방법(꿈, 환상, 환청)을 반대하고 전통적으로 교부시대부터 내려오는 4종의 주석 방법(literarisch, allegorisch, moralisch/ tropologisch, anagogisch)에 따르며 해석의 최종 권위를 성령과 성서에 두다. 즉 성령의 내적 명석성과 성서의 자기 해석(Selbstauslegung: *scritura sacra sui ipsius interpres*)²⁴⁾이다. 뛰어가 그의 신학의 중심을 성령신학에 두었다면 루터는 성서신학(말씀의 신학)에 두었다.

B. 뛰어

뛰어 신학의 특수 현상은 성령과 성서가 내적 말씀과 외적 말씀의 반명제(Antithese)로서 나타난다.²⁵⁾ 그것은 영과 의문에 대한 바울의 말에서 출발한다(고후 3:3-6). 살아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성령으로 심장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쓰여지나 문서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뛰어는 극단적으로 신앙을 갖거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서의 무익성을 내세우고 하나님 계시를 직접 인식하는데 그 근거를 성령에 두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살아 생전에 성서를 읽지도 듣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기독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²⁶⁾ 영(靈)은 하나님 인식의 유일한 기초가 되고 성령이 흘로 인간의 심령을 움직일 때 단순한 문자로서의 성서는 다만 외적인 형태로 머물게 된다. 뛰어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과 외적이고 역사적으로 전승된 성서를 철저히 구분한다. 성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지만 신앙은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인간의 육비(肉碑)에 그의 말씀을 쓰신다. 영은 스승이요, 개개인의 선민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이다.

24) WA 7, 97, 23.

25) Thomas Nipperdey, Reformation, Revolution, Utopie, S. 40f.

26) MSB 277, 25-278, 4.

뛰어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이해를 배격하고 감성적(感性的) 이해를 촉구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참된 신앙이란 성서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리는 감정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쓰라린 시련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가르쳐서 알게 할 수 없고(non posse doceri)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경험한 신앙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뛰어는 다만 이론적이고 명상적인 신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선민의 영적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을 중요시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의 성령의 교리가 이 세상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고 어떻게 육적이고 욕망으로 가득찬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였다. 뛰어에게 영향을 끼친 요하킴 폰 피오레에 의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전제 조건은 성령받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적 변화를 보았다.²⁷⁾ 세상의 변화는 요엘 2:11에 나타난 대로 온 세상의 성령화이다. 성령은 뛰어에게 명상적-사색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쟁적-역동적 의미를 가진다. 뛰어는 인간의 내적 세계의 변화 없이 사회나 이 세상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한 민중에게 권력이 주어져 그들이 세상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뛰어의 신정정치(神政政治)의 구상(theokratische Idee)이다. 뛰어가 그의 신학을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영감(靈感)에 의한 예언(Theomantie)과 그에 상응하는 신정정치(Theokratie) 실현이다. 뛰어가 생각한 종교개혁은 인간의 내적이고 영적인 개혁이 우선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정치적 개혁이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칼 힌리히스(Carl Hinrichs)에 의하면 뛰어의 최종 목적인 사회적, 정치적 혁명은 인간의 내적 개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²⁸⁾ 뛰어에게는 개인의 변화가 곧

27) Alfons Rosenberg, Joachim von Förra: Das Reich des Heiligen Geistes, S. 11.

28) Carl Hinrichs. Luther und Müntzer, Ihre Auseinandersetzung über Obrigkeit und Widerstandsrecht. S. 53.

교회의 변화, 당국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²⁹⁾ 뮌采의 사회-정치적 혁명은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적 삶의 형태를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소망의 결과이다. 트뢸취는 뮌采는 처음부터 성령과 신비주의에 감회된 선민들의 공동체를 구상했고, 더 나아가 그것을 공동분배적 사회형태로 확대시키려 했다고 보았다.³⁰⁾ 그러므로 뮌采의 하나님 나라는 선민들의 심장에서부터 출발한다. 곧 개인의 간구를 통해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간구으로 확대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뮌采의 꿈이었다.

3. 십자가 신학

A. 루터

루터 신학의 중심 개념으로서의 십자가 신학은 그의 하이델베르크 논제(*Disputatio Heidelbergae habita* 1518, WA 1, 353–374)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루터는 명백히 그의 신학을 인간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대치한 스콜라 신학을 대표하는 영광의 신학과 구분지었다. 루터는 그의 십자가 신학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공적을 자랑하고 인간의 행위로 칭의를 얻으려는 중세의 행위 경건(*Werkfrömmigkeit*)을 반박한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어진 하나님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뒷 모습을 보고 인식하는 자라야 신학자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qui visibilia et posteriora Dei per passiones et crucem conspecta intelligit*).³¹⁾ 하나님의 뒷편이란 곧 그의 인성(*Menschheit*)이

29) Hans-Jürgen Goertz, Thomas Müntzer, Mystiker. Apokalyptiker. Revolutionär, S. 168.

30) Ernst Tröltsch.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erster Band. S. 878.

31) WA 1, 362, 1.

요, 그의 연약함(Schwachheit)이요, 그의 우둔함(Torheit)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십자가의 치욕과 비참함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에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하거나 유용하지도 않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구원론과 인식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숨겨진 하나님(Deus absconditus)은 다만 십자가와 고난 속에 서만 드러난다(Deus revelatus).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학과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Ergo in Christo crucifixo est vera Theologia et cognitio Dei).”³²⁾ 루터의 신학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Crucis sola est nostra Theologia)”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والتر 폰 레벤니히(Walther von Loewenich)는 그의 저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 “영광의 신학(theologia gloriae)에 반대되는 십자가 신학은 중세의 사변적 신학에 반대되는 구속사적 신학(heilsgeschichtliche Theologie)을 의미한다”³³⁾고 말했으며 “십자가 신학은 루터의 특별한 시기에 머무는 초기시대 신학으로 제한할 수 없고 바울에게서와 같이 그의 전체 신학적 사고(思考)를 묘사한다”³⁴⁾고 보았다.

루터나 뮌采의 십자가 신학에 있어서 문제점은 루터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을 철저하게 구분하는데 반해 뮌采는 그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일시(Identifizierung)하여 강조한 데 있다. 루터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로서의 그 자신들의 고난과 시련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또는 성자(聖者)들과는 질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루터의 결정적이고 의미있는 표현은 “모든 성자들과 예언자들과 순교자들의 수난은 물이 된다.”³⁵⁾ 그래서 그 자신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혼합해서는 안 되고 또는 칭의 획득의 행위로서나 공적

32) WA 1, 362, 18: *Disputatio Heidelbergae habita*.

33) Walther von Loewenich, Luthers theologia crucis, 6. Auflage, S. 13.

34) Ebenda, S. 14–15.

35) WA 28, 228, 7–229, 1.

의 행위로서 스스로 십자가나 고난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모범과 관련하여 루터는 중세 후기의 경건인 그리스도의 모방(Imitatio Christi)을 강조한다. 그러나 루터는 뮌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Gleichförmigkeit)과 인간의 신격화를 배격한다.

B. 뮌찌

루터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뮌찌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참된 기독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뮌찌에게는 개개인의 신앙의 실존에 상응하지 않는 객관적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뮌찌의 고난의 십자가는 그의 성령신학과 불가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뮌찌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경험은 성령을 받는데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론적으로 인식된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실제적으로 경험된 고난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모범(Vorbild)”이지만 뮌찌에게 있어서는 “삶(Leben)” 그 자체가 된다.

뮌찌는 그의 묵시론적 고난 이해에 따라 종말 시대의 설교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심판에 대해 설교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뮌찌는 루터가 “달콤한 밀씀”과 “달콤한 그리스도”나 “용서하는 그리스도”만 설교하는 것을 비난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심판의 말씀”과 “쓰라린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할 것을 강조한다. “쓰라린 그리스도” 대신에 육적인 세상의 요구대로 “달콤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독(毒)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³⁶⁾ 그러므로 선택

된 하나님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당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타락하고 가련하고 몰락한 교회를 개신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⁷⁾

뮌찌의 주장은 마음 속에서 신앙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낸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주관적으로 고난에 가득한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 성령으로부터 영감받은 선민이 될 수 없고 선택된 민중 없이는 타락된 교회와 분열된 기독교계를 개신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뮌찌의 하나님 나라는 철저적 종말론에 의해 우주적 심판 후 도래(到來)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어지고 선민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이다.

뮌찌는 이미 쯔비카우(Zwickau) 시절부터 사회적 부정의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자로 활동하였다.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맑스주의 역사가가 보는 것처럼 뮌찌가 사회적 고통의 해소를 사회적 혁명이나 이상적 공산주의적 사회 건설의 한 단계로 보았는지이다. 의심할 것 없이 뮌찌의 종교개혁의 출발점과 관심은 일차적으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등기와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칼 홀(Karl Holl)은 뮌찌가 세상의 변혁을 시도한 것은 전적으로 사회주의적 등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적 등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⁸⁾ 그의 구체적이고 신학적인 목표는 민중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를 기독교적 삶의 규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데 있었다. 뮌찌는 사회적 고통의 제거와 외적 자유를 종교개혁의 최종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참된 신앙을 가져오는 전제 조건을 삼았다. 먼저 십자가 경험을 통한 내적 혁명이 외적 - 사회적 개혁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혁명까지 발전해 나간다. 그러므로 뮌찌의 “십자가의 신학은 혁명을 배제하지 않고 오

36) MSB 222, 9.

37) MSB, 227, 6: 226, 17.

38) Karl Hol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I, S. 453f.

하려 혁명을 촉구한다.”³⁹⁾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외부적 상황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내적 고난과 외적 고통은 상호 교호 작용한다. 즉 내적 시련과 십자가를 지는 것 등은 외적 핍박과 추방당함과 사악한 자들에 의한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4. 역사신학

A. 루터

뮌쩌의 역사관이 요하킴(Joachim)의 역사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루터의 역사신학은 어거스틴의 이왕국적 역사관에 영향을 받았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악의 상징인 세상의 나라(civitas terrena)와 선의 상징인 하나님의 나라(civitas Dei) 사이의 투쟁의 연속이 곧 역사요, 종말과 함께 이 선악간의 투쟁의 역사는 선의 최종 승리와 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다.⁴⁰⁾ 루터는 역사적 비판적 방법이나 사회-경제사적 방법이나 생물학적 증언 방법에 따라 역사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기독교적 이원론의 세계관에 따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악마의 싸움터(Kampffeld)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는 이 세상 종말까지 계속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루터가 어거스틴과 다른 점은 국가를 상징하는 이 세상의 도성(civitas terrena)을 악의 도성(civitas Diaboli)으로 보지 않고 중립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세상 나라(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고 선인을 보호하며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것임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¹⁾ 이것은 그의 이왕국론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은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의 오른 팔과 원

39) Thomas Nipperdey, *Reformation, Revolution, Utopie*, S. 60.

40) Aurelius Augustinus, *De civitate Dei* XXII. 30.

41) Ernst Kinder, *Gottesreich und Weltreich bei Augustin und Luther*. in: H. H. Schrey(Hrsg.). *Reich Gottes und Welt*. S. 44–49.

팔 곧 영적 정부(교회)와 세속 정부(국가)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 즉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보았다. 두 정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이다. 루터는 가면의 교리(Larvenlehre)에 따라 모든 세속 직무와 인물은 스스로 행하는 것같이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의지(意志)에 봉사한다고 보았다.⁴²⁾ 그래서 개인이나 역사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⁴³⁾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루터와 뮌쩌가 서로 다르다. 루터는 천년왕국론에 관한 어거스틴의 입장에 따른다. 어거스틴은 계시록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대(계 20, 1-10)를 지상의 교회시대로 보았다. 즉, “지금의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늘의 왕국이다.”⁴⁴⁾ 초대교회 아래로 임박한 종말론에 의한 천년왕국의 대망(待望)은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후 점차 후퇴되고 비밀집회와 분파운동에서나 고대하는 것으로 보았다. 루터 역시 어거스틴처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대를 종말론적 미래로 본 것이 아니라, 교회사적 과거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루터는 뮌쩌나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상적 지상 천년왕국의 도래를 배격하고 어거스틴적-구속사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미래적 최종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였다.

루터는 그의 시대를 임박한 종말의 시대로 보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열광주의자들을 악마의 현현으로 보았는데 이들은 좀개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의 대적자들이지만 넓개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이해하였다. 루터의 종말론은 미래적이며 현재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고, 종말 곧 적그리스도는 나타났으나, 아직 최후의 심판은 오지 않고 있다. “의인은 동시에 죄인(Simil iustus et peccator)”이라는 신학명제는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하늘에서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여전히 죄

42) WA 40 I, 175. 17:176, 28.

43) WA 50, 384. 2f.

44) *De civitate Dei* XX. 9.

인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루터의 종말론적 관심은 구속사 안에서 최후의 심판 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서 세상의 완성에 있었다.⁴⁵⁾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성서의 증언에 따라 이 중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현세적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마 16:16; 막 1:15)와 미래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마 16:27; 행 1:11; 고전 16:22)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WA 30 I, 200, 22)요, “의와 진리의 나라”(WA 2, 97, 19)요, “신앙 안에 숨겨진 나라”(WA 36, 569, 1-9)이다. 루터는 뮌쩌의 일왕국론에 반대하여 사회-정치적 혁명으로 지상의 보이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대치하는 것을 배격하였다.

B. 뮌쩌

뮌쩌는 요하킴과 보해미아 타보르파의 천년왕국 사상을 도입해 그의 시대와 역사를 이해하였다. 특히 요하킴의 삼시대론(Drei-Zeitalter-Theorie)⁴⁶⁾에 따라 근본적으로 그의 시대를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종말의 시대로 보았다. 뮌쩌에 의하면 그의 시대는 마지막 추수 때로 은혜와 동정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요, 피를 보는 복수의 때라는 것이다. 뮌쩌는 종말의 징조로 타락한 교회와 그에 따른 사악한 사제들의 우상숭배 행위를 들고 있다. 더 나아가 터키의 침공과 농민들의 봉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보았다. 또한 다니엘서 2장의 주석설교에서 뮌쩌의 그의 시대를 철과 흙이 뒤섞인, 곧 교회와 영주국가가 권력에 야합하는⁴⁷⁾ 마지막 시대로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후 안식의 나라(Sabbatreich)로서 그리스도와 선민들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을 믿었다.

45) Vgl. Ulrich Asendorf, Eschatologie bei Luther, S. 243-248.

46) 요하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상응하게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A.D. 1260년부터 성령이 다스리는 제3의 시대를 보았다.

47) Carl Hinrichs, Luther und Müntzer, ihre Auseinandersetzung über Obrigkeit und Widerstandrecht, S. 48.

뮌쩌는 이 설교에서 사제들과 모든 사악한 성직자들을 벤이라고, 세상 주관자들을 독사라고 비난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묵시론적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영주들에게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그의 종교혁명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만약 이 시대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들 역시 사악한 자들처럼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뮌쩌는 그 자신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자인 제2의 다니엘로 의식하였고 마지막 시대에 잡초(사악한 자들)를 제거하고 알곡(선민들)을 모으는 것이 그의 임무로 생각하였다: “추수의 때가 왔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의 추수에 나를 세(貳)내었다. 그래서 나는 긴 낫을 날카롭게 갈았다.”⁴⁸⁾ 사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할 종말의 때가 이미 왔다는 것이다.

뮌쩌는 역사의 수동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동자였다. 뮌쩌는 역사의 진행 과정이 홀로 하나님의 예정된 진로에 따라 움직여진다고 보는 순수 운명론자가 아니라, 혁명에 의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혁명의 투사(鬪士)였다. 혁명이 아니고서는 타락한 교회와 사회를 완전히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이 뮌쩌의 결론이다.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지상에 실현시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임무를 부여받은 선민들의 무력 투쟁뿐이다. 즉 기독교의 복음 수호를 위해 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츠비카우 시대 이후 뮌쩌가 추진했던 종교개혁은 “아래로부터” 또는 “민중에 의한”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이었다. 그는 루터의 제도권에 의지하는 “영주종교개혁”에 반기를 들고 비제도권의 “민중종교개혁”을 추진하였다.⁴⁹⁾ 그래서 뮌쩌는 사악한 영적 지배자들과 세속 지배자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민중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혁명의 전위대로 의식화시켰다. 뮌쩌는 집권층과 지식계층과의 충돌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의 순교자적 죽음으로 민중에게 그의 십

48) MSB 504, 18.

49) M. M. Smirin, Die Volksreformation des Thomas Müntzer und der grosse Bauernkrieg, S. 279-280.

자가 신학을 실증해 보였다.

5. 정치신학

A. 루터

루터의 이왕국론에 나타난 그의 정치 사상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의 교회투쟁(Kirchenkampf)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평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루터가 프리드리히 대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그리고 히틀러에 이르는 민족적 전제주의 국가 태동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⁵⁰⁾

루터의 이왕국론은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의 역사신학인 두 도성(Duo civitas)의 교리와 중세의 두 절대권(zwei Imperien, 교황권과 황제권)의 교리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옥캄(Occam)의 이론에 따라 두 왕국을 이 세상의 세속 영역(temporalia)과 초자연적인 영역 곧 종교 및 영적 영역(spiritualia)으로 날카롭게 분리하였다.⁵¹⁾ 루터의 의도는 1) 교회와 제국간의 관계에서 교황이 영권과 세속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두 검의 이론(Zwei-Schwert-Lehre)을 배격하기 위함이요, 2) 세속권이 신자의 신앙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을 배격하기 위함이요, 3)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따라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세상 당국이나 세상 질서로부터 무정부적 해방을 추구하는 것을 배격하기 위함이었다. 루터의 이왕국론의 뼈대는 1523년에 출판한 그의 저작 『세속 권위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Von weltlicher Obrigkeit, wie weit man ihr schuldig sei*⁵²⁾에 잘 나타나 있다. 루터는 특히 로마서 13장 1-2절을 근

50) Vgl. Karl Barth, Eine Schweizer Stimme 1938-1945. Bernhard Lohse, Zwei-Reiche-Lehre und Königsherrschaft Christi, in: Gottfried Forck, Die Königsherrschaft Jesu Christi bei Luther, S. 155-167.

51) Hermann Jordan, Luthers Staatsauffassung, S. 3.

거로 비록 세상 당국이 악하거나 불신앙일지라도 하나님에 제정한 세속 권위에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크리스천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불의 한 치리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다. 루터는 철저히 정교분리(政教分離) 원칙을 고수하였다. 즉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 세상 나라로서 국가가 존재하고, 저 세상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가 존재한다.

루터의 이왕국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그의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 당국은 공권력을 통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고 보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국가는 외적인 질서와 평화를 책임지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세상 법(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두 정부, 곧 영적인 정부인 교회와 세상 정부인 국가는 비록 그들의 통치 방법이나 통치 수단(복음과 율법)에 있어서 구분된다 할지라도 그들 서로는 비방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 정부가 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둘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두 정부는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은사(恩賜)이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세상 당국과 교회를 통해서 세속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수행해 나가신다고 보았다.

농민전쟁 중에도 루터는 그의 두 왕국론을 견고하게 고수하였다. 농민전쟁시 나온 루터의 저작들은 폭동과 혁명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루터는 폭동과 혁명은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범죄로 정죄하였다. 루터는 뮌采를 암마의 화신으로, 튜링기아의 농민반란의 주범으로 보았고 농민들을 선동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또한 뮌采의 저항권(Widerstandrecht)의 이론과 그에 따른 혁명의 정당성을 배격하였다. 신민의 저항권에 있어서 루터는 신앙과 양심의 문제만 국한한데 반해 뮌采는 세속적인 문제까지 확대하였다.

52) WA 11, 245-281.

루터는 뮌찌처럼 결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일원론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이원론적으로 철저히 분리하였다.

B. 뮌찌

루터와 뮌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들로 한 사람은 보수적이고 또 한 사람은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다. 비록 둘 다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종교개혁을 다소(多少)간의 정치적 원조와 함께 종교개혁을 수행해 나갔다. 루터에 대항한 뮌찌는 정치적 싸움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패배하였다.

뮌찌의 세상 당국에 대한 생각은 초기에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세상 당국이 악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⁵³⁾ 그는 근본적으로 로마서 13장 3절 이하에서 세상 당국을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악한 자들을 벌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수행자로 여겼던 것이다. 더구나 뮌찌는 그의 추종자들이 박해를 받고 추방당한 사건을 폭군적인 당국을 통해 선민들을 위해 참된 신앙의 훈련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벌로 이해했던 것이다.

루터와 같이 뮌찌 역시 “두 정부 이론(Zwei-Regimente-Lehre)”에 근거하여 세상 당국이 종교적-영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뮌찌는 “제후나 지역 영주는 세속의 일들을 다스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⁵⁴⁾라고 주장하였다. 뮌찌는 만약 제후나 제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에 끼어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저항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뮌찌는 루터와 다른 세상 당국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뮌찌 역시 로마서 13장을 인용했지만 그는 루터가 1절과 2절을 통해 [신민

의 복종]을 강조하는 반면에 3절과 4절을 들어 [신민의 저항권]에다 강조점을 두었다. 뮌찌의 세상 당국에 대해서 주된 관심은 신민의 복종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의 제거(除去)에 두었다. 그는 세상 당국이 악인들에게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이교인들도 하는 일이라 말하고 세상 당국은 또 다른 임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당국이 기독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해하는 악인들을 겸으로 제거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제후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로 하나님에 그들에게 겸을 준 것은 그들의 전횡(專橫)이나 독재나 압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악인을 벌하고 의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도록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후는 겸의 주인이 아닌 겸의 종이어야 한다”⁵⁵⁾는 것이다. 제후의 관리는 하나님의 임무의 충족에 있다. 그렇지 않고 임무를 저버리면 전복(顛覆)될 수 있다는 것이 뮌찌의 견해이다.

뮌찌에게는 무엇보다도 주권의 본질이 중요했다. 즉 주권의 최종 귀속성(endgültige Rechtsangehörigkeit)이 문제였다. 뮌찌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요, 세상 당국은 다만 하나님의 보이는 위탁 기구요, 잠정적인 대리자일 뿐이다. 뮌찌는 겸의 권리(통치권)를 당국의 고유한 절대권이 아닌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리로 이해하였다. 그 권리란 하나님에 의해 제후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 의해 빼앗길 수 있고 선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뮌찌는 루터처럼 왕권의 절대성(Absolutheit)이나 당국의 권리 독점(Gewaltmonopol)을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악한 폭군이나 당국을 전복하고 제거하도록 촉구하였다. 루터가 세상 당국은 위로부터 나온 절대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기관으로 사람의 손으로 절대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해, 뮌찌는 국력은 아래로부터의 선택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넘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뮌찌는 당국으로부터 선택된 민중에게로의 정권 이양(Herrschabsablösung)을 주장하였다. 민중에로의 정

53) MSB 285, 11f.

54) MSB 412, 23.

55) MSB 329, 2.

권 이양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뮌쩌는 다니엘서 7:27을 들고 있으며 또한 누가복음 1:52과도 연관시키고 있다. 만약 영주들이 그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사악한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니엘서 7:27에 의해 멸지 않아 민중, 곧 선민에게 권력이 넘겨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뮌쩌의 “민중의 저항권” 또는 “민중의 주권”에 관한 교리이다.

III. 결언

루터 아래로 뮌쩌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뮌쩌에 대한 그릇된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 뮌쩌의 종교개혁은 외피적 판단에 따라 다만 초기 시민혁명으로서 사회-정치적 혁명만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내적 개신과 내적 혁명을 통한 사회개신과 사회혁명을 추구하였고 최종의 목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있으며 그의 전(全) 신학, 곧 신비주의 신학, 성령신학, 십자가 신학, 역사신학, 정치신학 등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뮌쩌의 하나님 나라는 선민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실현된다. 뮌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적용되고 실현되는 사회를 고대한 것이다. 곧 성령의 예언적 灵感(Theomantie)에 의한 신정정치(Theokratie) 수립이 그의 이상이었다.

뮌쩌의 장점은 개인의 신비적 구원, 곧 중생과 이 세계의 구원을 같은 比重 하에 두었다는 데 있다. 그는 복음의 선포와 사회정화 운동을 병행하였고, 신앙과 사회윤리(정치)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었다. 비록 뮌쩌의 행동이 지배층에 대한 증오에서 動機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회-정치적 관심과 욕구는 신학적 목적에 봉사한다.

그의 神國論은 일차적으로 신학적 토대와 이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뮌쩌의 또 다른 공헌은 중세 후기

의 상황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뮌쩌의 또 다른 공헌은 중세 후기의 교회적-사회적 제도의 모순에 대항하여 인간의 권리와 행복을 진지하게 추구했다는 점이다. 뮌쩌는 피압박자들의 대변인으로서 그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영적이며 종교적인 그리고 신체적이며 사회-정치적인 개혁을 주도하였다. 반면에 뮌쩌의 약점은 젤롯당과 비슷한 무력혁명으로 지상에다 메시야 왕국을 건설하려는 데 있다. 무력 사용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 열정에 의한 인간의 자발적 개입은 비판을 받게 된다. 또한 기독교에서의 폭력이나 반폭력(Gegengewalt)의 문제는 항상 비판과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끝으로 한국교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한마디 마감말을 하고자 한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비대해지면서 교회와 사회의 모순이 커지게 되었고, 교회의 타락이 심화됨으로 종교개혁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교회 그 자체는 항상 올바르고 새로워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어떠한가? 개신교의 유산인 개혁정신을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의가 판치고 고도의 기술문명사회로 비인간화와 집단적 이기주의로 경직화된 이 시대의 상황과 교회 내에서까지 물질만능주의, 실적주의, 교권적 이기주의가 팽대하고 신앙 양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복신앙으로 일관된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체질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러므로 축복으로 일관된 강단 설교가 판치는 이 시대에 교회와 인간의 삶의 자리인 이 세상을 함께 바라본 뮌쩌의 신학은 그의 혁명의 사상을 제외하고는 재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뮌쩌와 그의 신학을 비판할 때 감정적으로나 자신들의 어떤 선입관적 사상의 틀에 넣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뮌쩌의 原資料와 성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Literaturverzeichnis

Quellen und Quellensammlungen:

- Augustinus, Aurelius: De civitate Dei, libri XXII. Recognoverunt Bernardus Dombart et Alfonsus Kalb, Nachdruck der Ausgabe Leipzig 1928: Darmstadt 1981.
- Benzinger, Rudolf und Hoyer. Siegfried(Hrsg.): Thomas Müntzer, Schriften Liturgisch Texte Briefe, Berlin(Ost) 1990.
- Brandt, Otto H: Thomas Müntzer. Sein Leben und seine Schriften, Jena 1933.
- Bräuer, Siegfried (Hrsg.): Thomas Müntzer. Deutsche evangelische Messe 1524, Berlin(Ost) 1988.
- Fiore, Joachin von: Concordia Novi ac Veteris Testamenti, Vendig 1519, Unveränderter Nachdruck–Frankfurt a,M, 1964.
: Expositio in Apocalypsim, Venedig 1527, Unveränderter Nachdruck–Frankfurt a,M, 1964.
- Fischer, Ludwig (Hrsg.): Die lutherischen pamphlete gegen Thomas Müntzer. dt 39. Tübingen 1976.
- Franz, Günther (Hrsg.): Thomas Müntzer, Schriften und Briefe. Kritische Gesamtausgabe. Unter Mitarbeit von Paul Kirn, Gütersloh 1968.
-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K der SED(Hrsg.):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7, Berlin(Ost) 1960: Band 22, Berlin(Ost) 1963.
- Dr, Martin Luther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WA), Weimar 1883ff.
: Disputation Heidelbergae habita(1518), WA 1.
: Duo sermones de passione Christi(1518), WA 1.
: Sermon von der Betrachtung des heyligen leydens Christi(1519),

WA 2

- : Auslegung deutsch des Vaterunsers für die einfältigen Laien(1519), WA 2
- :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ascher Nation von des christlichen Standes Besserung(1520), WA 6.
- :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1520), WA 7.
- : Das Magnificat verdeutschet und ausgelegt(1521), WA 7.
- : De votis monasticis Martini Lutheri iudicium(1521), WA 8.
- : Eine treue Vermahnung Martin Luthers an alle Christen, sich zu hüten vor Aufruhr und Empörung(1522). WA 8.
- : Acht Sermon D. M. Luthers(1522), WA 10 Ⅲ.
- : Von weltlicher Obrigkeit, wie weit man ihr Gehorsam schuldig sei(1523). WA 11.
- : De instituendis ministris Ecclesiae(1523), WA 12.
- : Ein Brief die Fürsten zu Sachsen von dem aufrührerischen Geist(1524), WA 15.
- : Vermahnung zumm Frieden auf die zwölf Artikel der Bauernschaft in Schwaben (1525), WA 18.
- : Vertrag zwischen dem löblichen Bund zu Schwaben und zwei Haufen der Bauern vom Bodensee und Allgäu(1525), WA 18.
- : Wider die räuberischen und mörderischen Rotten der Bauern(1525), WA 18.
- : Ein Sendbrief von dem harten Büchlein wider die Bauern(1525), WA 18.
- : Eine schreckliche Geschichte und ein Gericht Gottes über Thomas Müntzer(1525), WA 18.
- : De servo arbitrio(1525), WA 18.
- : Wochenpredigten über Joh. 16–20 (1528/29), WA 28.
- : Deutschh Catechismus (Der Große Katechismus)(1529), WA 30 I.
- : Predigten des Jahres 1532, WA 36.
- : In epistolam S. Pauli ad Galatas Commentarius(1531/1535), WA 40 I, WA 40 II.
- : Supputatio annorum mundi(1541, 1545), WA 53.

Dr. Martin Luthers Werke, Briefe(WA Br), Weinmar 1883.

- : Luther an Joh: Lang(1521), WA Br 2: Nr. 445.
- : Luther an Joh: Lang(1522), WA Br 2: Nr. 469. Büäö.
- : Luther an Herzog Joh. Friedrich von Sachsen(1524), WA Br 3: Nr. 753.
- : Luther an Nikolaus von Amsdorf in Magdeburg(1525), WA Br 3: Nr. 855.
- : Luther an Johann Rühl(1525), WA Br 3: Nr. 860.
- : Luther an Johann Rühl(1525), WA Br 3: Nr. 874.
- : Luther an Johann Rühl(1525), WA Br 3: Nr. 877.

Dr. Martin Luthers Werke, Deutsche Bibel(WA DB), Weimar 1883.

- : Vorrede auf die Offenbarung S. Johannes(1546/1530), WA DB 7.
- : Aus der Bibel 1546(1546), WA DB 7.

Dr. Martin Luthers Werke, Tischrede(WA Tr), Weimar 1883.

- : WA Tr 1: Nr. 84.
- : WA Tr 2: Nr. 2060.

Matheson, Peter (Tranlated and Edited): The Collected Works of Thomas Müntzer, Edinburgh 1988.

Oberman, Heiko A. (Hrsg.): Die Kirche im Zeitalter der Reformation, Kirchen-und Theologie in Quellen, Neukirchen-Vluyn 1985.

Quing, Josef: Textbuch zur Mystik der deutschen Mittelalters. Meister Eckhart. Johannes Tauler. Heinrich Seuse, zweite Auflage Tübingen 1957.

Plöse, Detlef und Vogler, Günter(Hrsg.), Buch der Reformation, Eine Auswahl zeitgenössischer Zeugnisse(1476-1555), Berlin 1989.

Wehr, Gerhard(Hrsg.): Thomas Müntzer, Schriften und Briefe. TB 1378, Frankfurt 1973.

Sekundärliteratur:

Althaus, Paul: Luthers Haltung im Bauernkrieg, in: Luther Jahrbuch VII (1925).
: Die Ethik Martin Luthers, Gütersloh 1965.

Asendorf, Ulrich: Eschatologie bei Luther, Göttingen 1967.

- : Die Theologie Martin Luthers nach seinen Prefigten, Göttingen 1988.

Bainton, Roland H: Martin Luther, 2. Auflage Göttingen 1958.

Bäumer, Remigius: Martin Luther und der Papst, Münster 1970.

Bayer, Oswald: Promissio. Geschichte der reformatorischen Wende in Luthers Theologie, Darmstadt 1989.

Beisser, Friedrich: Claritas Scripturae bei Martin Luther, Göttingen 1966.

Beintker, Horst J. Eduard: Jesu Nachfolge im Zeichen des Kreuzes bei Müntzer und Luther, in: Luther, Zeitschrift der Luther Gesellschaft 1990 Heft 2.

Bensing, Manfred: Thomas Müntzer und der Thüringer Aufstand 1525, Berlin, 1966.

- : Thomas Müntzer, 3., neubearb. Auflage, Leipzig 1983.

Bickle, Peter(Hrsg.): Der deutsche Bauernkrieg von 1525, Darmstadt 1985.

Bloch, Ernst: Thomas Müntzer als Theologe der Revolution. Berlin, 1980.

Boehmer, Heinrich: Der junge Luther, 5. Auflage Leipzig 1952.

- : Thomas Müntzer, in: Bornkamm, Heinrich und Hofmann, Hans(Hrsg.), Studien zu Kirchengeschichte 52, München 1974.

Bornkamm, Heinrich: Luthers geistige Welt, Gütersloh 1953.

- : Luther und das Alte Testament, Tübingen 1948.

Böcher, Otto: Die Johannesapokalypse, Darmstadt, 1980.

Bräuer, Siegfried: Martin Luther in marxistischer Sicht von 1945 bis zum Beginn der achtziger Jahre, Berlin 1983.

- : Luther und die Bauern, in: Luther Jahrbuch 52.

(Hrsg.): Historien von Thomas Müntzer, Acta Humaniora, Weinheim 1989.

Bräuer, Siegfried und Junghans, Helmar(Hrsg.): Der Theologe Thomas Müntzer, Göttingen 1989.

Brecht, Martin: Martin Luther, Band 2, Ordnung und Abgrenzung der Reformation 1521-1532, Stuttgart 1986.

Brecht, Martin und Ehmer, Hermann: Südwestdeutsche Reformationsgeschichte, Stuttgart 1984.

- Brendler, Gerhard: Martin Luther. Theologie und Revolution, Berlin(Ost) 1983.
- Bultmann, Rudolf: Geschichte und Eschatologie, Tübingen 1958.
- Demke, Christoph (Hrsg.): Thomas Müntzer. Anfrage an Theologie und Kirche, Berlin(Ost) 1977.
- Dülmen, Richard van: Reformation als Revolution. Frankfurt 1987.
- Ebert, Klaus: Thomas Müntzer. Von Eigensinn und Widerspruch. Frankfurt 1987.
- Eicher, Peter(Hrsg.): Theologie der Befreiung im Gespräch, München 1985.
- Elliger, Walter: Luthers politisches Denken und Handeln, Berlin 1952.
: Thomas Müntzer. Leben und Werk , Göttingen 1975.
: Außenseiter der Reformation Thomas Müntzer, Göttingen 1975.
- Eusebius von Cäsarea: Kirchengeschichte, 3., unveränderte Auflage Darmstadt 1989.
- Forck, Gottfried: Die Königsherrschaft Jesu Christi bei Luther, Berlin 2., erweiterte Auflage 1988.
- Foschepoth, Josef: Reformation und Bauernkrieg im Geschichtsbild der DDR. Berlin(Ost). 1976.
- Franz, Günther: Der deutsche Bauernkrieg. Darmstadt 1984.
- Friedrich, Gerhard: Utopie und Reich Gottes, Göttingen, Kleine Vandenhoeck-Reihe 1403.
- Friesen, Abraham: Reformation and Utopia, Veröffentlichungen des Instituts für europäische Geschichte Mainz Band 71, Wiesbaden. ॥.
- Fuchs, Walther Peter: Das Zeitalter der Reformation, Sonderdruck aus Gebhardt, Handbuch der deutschen Geschichte Band ॥, 8. Auflage, Stuttgart 1955.
- Gerdes, Hayo: Luthers Streit mit den Schwärmern um das rechte Verständnis des Gesetzes Mose, Göttingen 1955.
- Gerdes, Hayo: Luthers Streit mit den Schwärmern um das rechte Verständnis des Gesetzes Mose, Göttingen 1955.
- Goertz, Hans-Jürgen: Innere und äußere Ordnung in der Theologie Thomas Müntzers, Leiden Netherlands 1967.
"Lebendiges Wort" und "totes Ding" in: Archiv für Reformations-

- geschichte, Jahrgang 67. 1976.
- (Hrsg.): Radikale Reformatoren. 21 biographische Skizzen von Thomas Müntzer bis Paracelsus, München 1978.
- : Pfaffenhaß und große Geschrei. Die reformatorischen Bewegungen in Deutschland 1517–1529, München 1987.
- : Thomas Müntzer, Mystiker. Apokalyptiker. Revolutionär. München 1989.
- Goertz, Hans-Jürgen und Friesen, Abraham(Hrsg.): Thomas Müntzer, Darmstadt 1978.
- Gogarten, Friedrich: Luthers Theologie, Tübingen 1967. Goll, Jaroslav: Quellinn und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böhmischen Brüder I / II,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New York 1977.
- Gritsch, Eric, W.: Reformer without a Church. The Life and Thought of Thomas Müntzer, Philadelphia 1967.
: Thomas Müntzers Weqq in die Apokalyptik, in: Luther Zeitschrift Luther-Gesellschaft 1989 Heft 2.
- Grundmann, Herbert: Studien über Joachim von Fiore, Darmstadt 1966.
- Hahn, Christoph Ulrich: Geschichte der Ketzer im Mittelalter, Band 3, Neudruck der Ausgabe Stuttgart 1850, Aalen 1968.
- Harnack, Adolf v.: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Drei Bände, Tübingen 1909.
- Heckel, Johannes: Lex Charitatis, Eine juristische Untersuchung über das Recht in der Theologie Martin Luthers, Darmstadt 1973.
- Hermann Pesch, Otto: Theologie der Rechtfertigung bei Martin Luther und Thomas von Aquin, Unveränderter Nachdruck Darmstadt 1985.
- Hertz, Anselm u.: Gottesreich und Menschenreich, Regensburg 1971.
- Hinrichs, Carl: Luther und Müntzer. Ihre Auseinandersetzung über Obrigkeit und Widerstandsrecht, Berlin 1952.
- Hirsch, Emanuel: Hilfsbuch zum Studium Dogmatik, 4. Auflage Berlin 1964.
- Hoffmann Lutz, Robert: Wer war der gemeine Mann? München/Wien 1979.
- Hoffmann, Rupert(Hrsg.): Gottesreich und Revolution, Münster 1987.
- Holl, Karl: Luther und die Schwärmer, in: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Bd. I, sechste Auflage, Tübingen 1932.

- Iserloh, Erwin: Geschichte und Theologie der Reformation im Grundriß, Paderborn 1980.
- Jacobs, Manfred(Hrsg.): Die evangelische Staatslehre, Göttingen 1971.
- Junghans, Helmar: Der Wandell des Müntzerbildes in der DDR von 1951/52 bis 1989, in: Luther Zeitschrift der Luther-Gesellschaft 1989 Heft 3.
- Kandler, Karl-Hermann: Reformation und Bauernkrieg, in: Luther, Zeitschrift der Luther-Gesellschaft 1977.
- Kautsky, Karl: Vorläufer des neueren Sozialismus, zweiter Band Stuttgart 1913.
- Kee, Howard Clark: Das frühe Christentum in soziologischer Sicht, UTB 1219, Göttingen 1982.
- Kolesnyk, A/Kalivoda, R: Das hussitische Denken im Lichte seiner Quellen, Belin(Ost) 1969.
- Krumwiede, Hans Walter: Glaube und Geschichte in der Theologie Luthers, Göttingen 1952.
- Kupisch, Karl: Feinde Luthers, Berlin 1951.
- Lambert, Malcolm D: Ketzerei im Mittelalter, München 1977.
- Lau, Franz: "Außerliche Ordnung" und "Weltlich Ding" in Luthers Theologie. Göttingen 1933.
- List, Günther: Chiliasmische Utopie und radikale Reformation, München 1973.
- Liewenich, Walther, v.: Martin Luther. Der Mann und das werk, München 1982.
: Luthers Theologia crucis, 6., unveränderte Auflage, Bielefeld 1982.
: Von Augustin zu Luther, Witten(Ruhr) 1959.
: Luther als Ausleger der Synoptiker, München 1954.
- Lohmann, Annemarie: Zur geistigen Entwicklung Thomas Müntzers, Beitrag zur Kulturgeschichte des Mittelalters und der Renaissance herausgegeben von Walter Goetz, Band 47, Hildesheim 1972.
- Lohse, Bernhard: Martin Luther in neuer marxistischer Sicht, in: Luther, Zeitschrift der Luther-Gesellschaft 1985, Heft 1.
: Thomas Müntzer, der Prophet mit dem Schwert, in: Luther, Zeitschrift der Luther-Gesellschaft 1990, Heft 1.
: Thomas Müntzer, in neuer Sicht, Müntzer im Licht der neueren

- Forschung und die Frage nach dem Ansatz siener Theologie, Hamburg 1991.
- Mau, Rodolf: Der christliche Fürst. Wie dachte Luther über das Verhältnis von Staat und Kirche? in: Luther, Zeitschrift Luther-Gesellschaft 1992 Heft 3.
- Markert, Ludwig und Karl Heinz, Stahl(Hrsg.): Die Reformation geht weiter, Erlangen 1983.
- Maurer, Justus: Prediger im Bauernkrieg, Stuttgart 1979.
- Meisner, Michael: Martin Luther. Heiliger oder Rebell, Lübeck 1981.
- Meusel, Alfred: Thomas Müntzer und seine Zeit, Berlin 1952.
- Moeller, Bernd(Hrsg.): Luther in der Neuzeit, Gütersloh 1983.
- Moltmann, Jürgen: Thomas Müntzer, in: Hans Jürgen, Schultz(Hrsg.), Luthet Kontrovers, Stuttgart 1983.
- Mühlen, Karl-Heinz zurr, Heiliger Geist und Heilige Schrift bei Thomas Müntzer, in: Luther, Zeitschrift der Luther-Gesellschaft 1989, Heft 3.
- Mülhaupt, Erwin: Luther im 20. Jahrhundert, Aufsätze, Göttingen 1982.
: Luther über Müntzer, erläutert und an Thomas Müntzers Schrifttum nachgeprüft. Witten 1973.
- Müller, Michael: Die Gottlosen bei Thomas Müntzer-mit einem Vergleich zu Martin Luther, in: Luther Jahrbuch 1979.
- Nicol. Martin: Meditation bei Luther, Göttingen 1984.
- Nigg, Walter: Thomas Müntzer, in: ders, Heimliche Weisheit, Zürich/Stuttgart 1959.
- Nipperdey, Thomas: Reformation, Revolution, Utopie. Göttingen 1975.
- Oberman, Heiko A.: Die Reformation, Göttingen 1986.
: Luther, Menschh zwischen Gott und Teufel, verbesserte Auflage Berlin 1987.
- Olivier, Daniel: Luthers Glaube. Die Sache des Evangeliums in der Kirche, Stuttgart 1982.
- Reeves, Marjorie: Joachim of Fiore and the prophetic future, London 1977.
- Rican, Rudolf: Die böhmischen Brüder, Union Verlag Berlin 1961.
- Rosenberg, Alfons, Joachim von Fiore. Das Reich des Heiligen Geistes, München 1955.

- Ruhbach, Gerhard und Sudbrack, Josef(Hrsg.): *Große Mystiker. Leben und Wirken*, München 1989.
- Schrey, Heinz-Horst(Hrsg.): *Reich Gottes und Welt*, Darmstadt 1969.
- Schwarz, Reinhard: *Die apokalyptische Theologie Thomas Müntzers und der Taboriten*. J. C. B. Mohr Tübingen 1977.
: *Luther*, Göttingen, 1986.
: Thomas Müntzers hermeneutisches Prinzip der Schriftvergleichung, in: *Luther*, Jahrbuch 1989.
- Schwarzläller, Klaus: *Zur Struktur von Luthers Pneumatologie*, in: *Luther*, Jahrbuch 1971.
- Seebaß, Gottfried: *Müntzers Erbe Werk, Leben und Theologie des Hans Hut*, Habilitationsschrift der Theologis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zu Erlangen-Nürnberg 1972.
: *Reich Gottes und Apokalyptik bei Thomas Müntzer*, in: *Luther*, Jahrbuch 1991.
- Seibt, Ferdinand: *Hussitica. Zur Struktur einer Revolution*, Köln 1965.
- Smirin, M. M: *Die Volksreformation des Thomas Müntzers und der große Bauernkrieg*, Berlin(Ost) 1956.
- Spillmann, Hans Otto: *Untersuchungen zum Wortschatz in Thomas Müntzers deutschen Schriften*, Berlin/Neu York 1971.
- Steinmetz, Max: *Das Müntzerbild von Martin Luther bis Friedrkch Engels*, Berlin(Ost) 1971.
(Hrsg.): *Der deutsche Bauernkrieg und Thomas Müntzer*, Leipzig 1976.
: Thomas Müntzers Weg nach Allstedt, Berlin(Ost) 1988.
- Sturm, Erdmann Karl: *Geschichte der Reformation im Unterricht, Handbücherei für den Religionsunterricht* Heft 19, Gütherloh 1975.
- Süssmuth, Hans(Hrsg.): *Das Luther-Erbe in Deutschland*, Düsseldorf 1985.
- Trötschh, Ernst: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Gesammelte Schriften erster Band*, Tübingen 1919.
- Wappler, Paul: *Thomas Müntzer in Zwickau und die Zwickauer Propheten*, Gütersloh 1966.
- Weber, Edmund: *Martin Luthers Obrigkeitstretheorie und die politische Mystik*

- Thomas Müntzers, in: THEION, Jahrbuch für die Religionskultur II 1993.
- Wehr, Gerhard: *Thomas Müntzer*. rm 188 Rowohlt TB, Hamburg 1972.
: *Deutsche Mystik*, Gütersloher Taschenbücher/Siebenstern 365, Gütersloh 1980.
: *Martin Luther*, Schaffhausen 1983.
- Williams, George Huntston: *The Radikal Reformation*, Philadelphia, 1962.
- Wingren, Gustaf: *Luthers Lehre vom Beruf*, München 1952.
- Winterhager, Friedrich: *Bauernkriegsforschung*, Darmstadt 1981.
- Winzeler, Peter: *Der Bauernkrieg und Thomas Müntzer. Dokumentation 43/84*, Berlin 1984.
- Wohlfeil, Rainer(Hrsg.): *Reformation oder frühürgerliche Revolution?*, München 1972.
: *Das wissenschaftliche Lutherbild der Gegenwar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annover 1982.
(Hrsg.): *Der Bauernkrieg 1524–26*, München 1985.
- Wolf, Gunther(Hrsg.): *Luther und Obrigkeit*, Darmstadt 1972.
- Wolgast, Eike: *Thomas Müntzer. Ein Verst rer der Ungläubigen*. Göttingen und Zürich 1981.
- Wollgast, Siegfried: *Der deutsche Pantheismus im 16. Jahrhundert*. Berlin 1972.
- Zahrnt Heinz: *Luther deutet Geschichte*, München 1952.
- Zimmermann, Joachim: *Thomas Müntzer ein deutsches Schicksal*, Berlin 1925.
- Zimmermann, Wilhelm: *Der große deutsche Bauernkrieg*. Düsseldorf 1990.
- Zitelmann, Arnulf: "Ich will donnern über sie!" Die Lebensgeschichte des Thomas Müntzer, Weinheim und Basel 1989.

Abkürzungsverzeichnis

- LJ: Luther Jahrbuch
LZ: Luther, Zeitschrft der Luther-Gesellschaft.

- MEW: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K der SED(Hrsg.), Kark Mark Friedrich Engels Werke, Berlin(Ost) 1960.
- MSB: Günther Franz(Hrsg.), Thomas Müntzer, Schriften und Briefe. Kritische Gesamtausgabe, Gütersloh 1968.
- ThM: Abraham Friesen und Hans-Jürgen Goertz(Hrsg.), Thomas Müntzer, Darmstadt, 1978.
- ThThM: Siegfried Bräuer und Helmar Junghans(Hrsg.), Der Theologe Thomas Müntzer, Göttingen 1989.
- WA: Dr.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
- WA Br: Dr. Martin Luthers Werke(Brief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
- WA DB: Dr. Martin Luthers Werke(Deutsche Bibel),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
- WA Tr: Dr. Martin Luthers Werke(Tischreden),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

루터와 뮌策의 신학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한 논평

이은선(안양대)

1. 이 논문은 루터와 뮌策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작을 소개한 후에 루터와 뮌策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다섯 가지 신학 분야 - 신비주의 신학, 성령신학, 십자가 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정치신학이란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다루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루터와 뮌策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특징을 원저작을 분석하면서 상호 대비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특별히 루터와 대비하여 뮌策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점이 돋보인다.

2. 이 논문은 루터를 배경으로 하여 뮌策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뮌策의 초기 신학 사상의 형성 과정을 밝혀 지금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주로 뮌策의 후기 사상이 사회주의 혁명 사상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본 논문은 뮌策의 초기 사상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인간의 내면적 갱신을 중시한다는 것을 밝혔다. 뮌策는 성령을 통한 내면적 갱신에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교회 갱신과 사회 갱신으로 확대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뮌策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단순하게 혁명